

[러시아유라시아]

타지키스탄, 2019년 경제 성장률 7.0% 전망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타지키스탄은 공공 투자 지속과 외부환경 개선으로 성장은 가속화되었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었다. 또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2019년 경제성장은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력 수출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지키스탄, 2018년 7.3% 성장률 기록

지난 2018년 타지키스탄의 경제 성장률은 7.3%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주된 이유로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와 높은 송금 유입액,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 확대가 꼽히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산업 성장은 2017년 21.3%에서 2018년 11.8%로 하락했는데, 이는 광석 수입 지연과 생산시설 보수 등으로 알루미늄 생산이 7.1%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역시 기문에 따른 목화 생산 하락으로 성장률이 2017년 6.8%에서 2018년 4.0%로 하락해, 높은 과일 및 야채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2018년 농업분야의 GDP 비중은 2017년 21.1%에서 2018년 18.7%로 하락했다. 수요측면에서, 공공부문 투자는 2017년 4.1%에서 2018년 7.8%로 상승한 반면, 순수출은 대폭 하락하고 인프라 투자로 자본재 등의 수입은 상승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GDP 성장률〉

국가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아르메니아	3.6	3.2	0.2	7.5	5.2
아제르바이잔	2.8	1.1	-3.1	0.1	1.4
조지아	4.6	2.9	2.8	4.8	4.8
카자흐스탄	4.2	1.2	1.1	4.1	4.1
키르기스스탄	4	3.9	4.3	4.7	3.5
타지키스탄	6.7	6	6.9	7.1	7.3
투르크메니스탄	10.3	6.5	6.2	6.5	6.2
우즈베키스탄	8	7.9	6.2	4.5	5.1

(출처:ADB, 2019)

2019년, 전력 생산 증가로 수출 확대 기대

아시아개발은행은 2019년 타지키스탄의 성장이 다소 둔화하여 2018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금 유입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부문별 생산 증가와 추가 전력 생산 및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개선으로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4월 로진댐의 두 번째 수력 발전기 완공과 산업화 가속으로 전력생산, 광산업 및 제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생산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투자가 2019년도에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7.5%,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전력 생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출 증대로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국내 식품 대체와 수입 대용품 생산 노력으로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지키스탄은 수출기반이 약하고 대외송금 의존도가 높아 세계 금융위기, 유가 변동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4월 로진 수력 발전소 완공으로 국내 제조업 추가 전력 공급, 전력 수출, 새로운 송전선로 설치 등 직간접적인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출처

- Asia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9.04
- <https://www.adb.org/publications/asian-development-outlook-2019-strengthening-disaster-resilience>